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<small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</small>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16(수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·상황실장 김일평, 상황반장 이성해, 반원 허원석 ·☎ (044) 201-4170, 4164, 3574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인프라 시설 정상 운영 중(4보)

□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국토교통부장관)는, 11월 16일 13시 현재 철도·고속도로 등 주요 국토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결과 일부 피해가 확인되었으나 안전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현재 대부분 정상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.

○ 철도의 경우, 포항역 內 소방용수관 파열 및 천장 마감재 탈락, 건설 중인 교량에 일부 변형*이 생기는 등 시설물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현재 정밀점검, 긴급보수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,

* 건설 중인 포항신항 인입철도 2개 교량(연화제4교, 남송교) Beam 이동(최대 20mm)

- 지진 직후, 매뉴얼에 따라 정차·서행 등이 이뤄지며 일부 열차의 지연이 발생했으나 어제 16시부터는 경부고속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*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며, 여진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서행구간의 속도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다.

* 경부고속선(동대구~신경주) 170km/h, (신경주~울산) 230km/h, 동해선(모량~포항) 90km/h

○ 고속도로의 경우, 교량 4개소에 일부 손상*이 발생하긴 했으나 교통을 통제할 만큼 심각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유지하면서 정밀점검을 병행 중이다.

* 대구-포항선 고속도로 4개 교량(포항C1,2교, 학전3교, 화대천교) 받침 손상(11개)

○ 모든 항공노선은 정상 운영 중이며, 댐·광역상수도 등 국토부가 관리 중인 수자원시설도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청·항공청·도공·수공·철도공사·공항공사 등 5,938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인프라 시설의 안전을 면밀히 점검 중에 있고, 점검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·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□ 아울러, 비록 국토교통부 소관시설은 아니지만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민간 아파트나 대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.

○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지원팀(10개반 26명)을 이미 현장에 파견하여 포항시·교육부 등 피해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수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허원석 사무관(☎ 044-201-35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